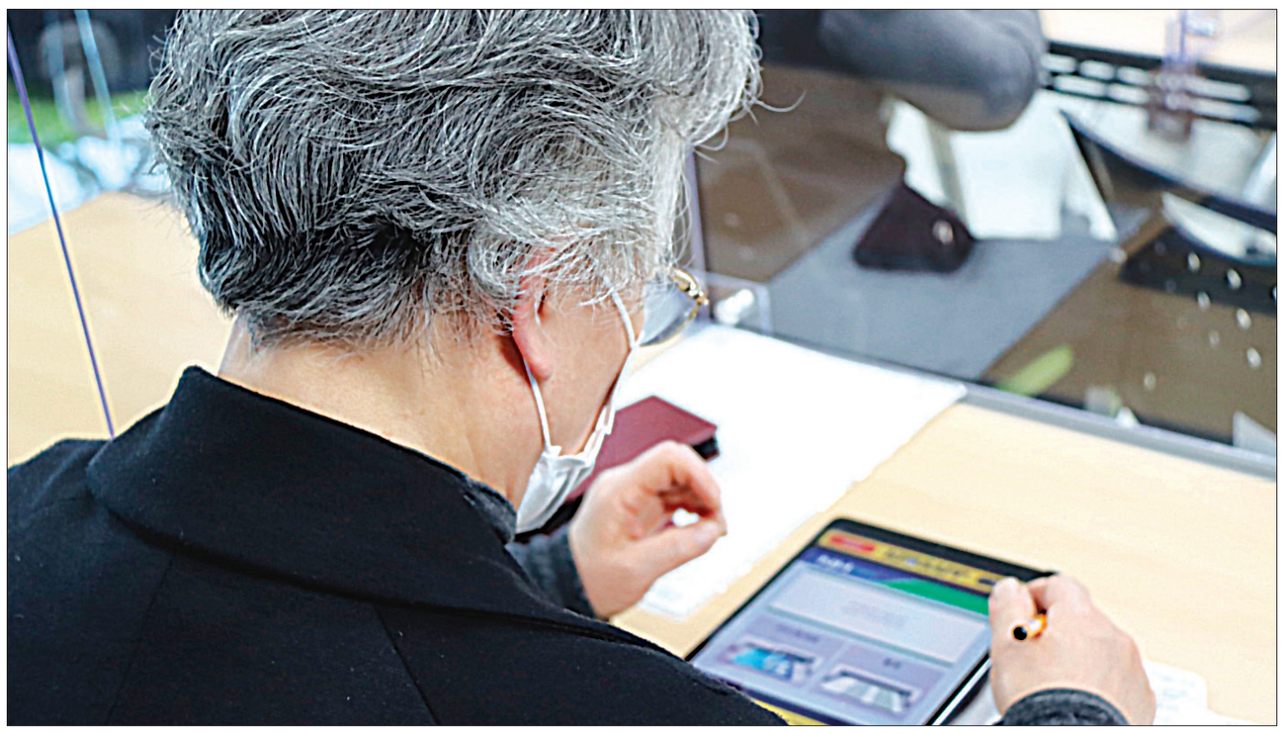
모바일 기부 하려는데, 폰 사용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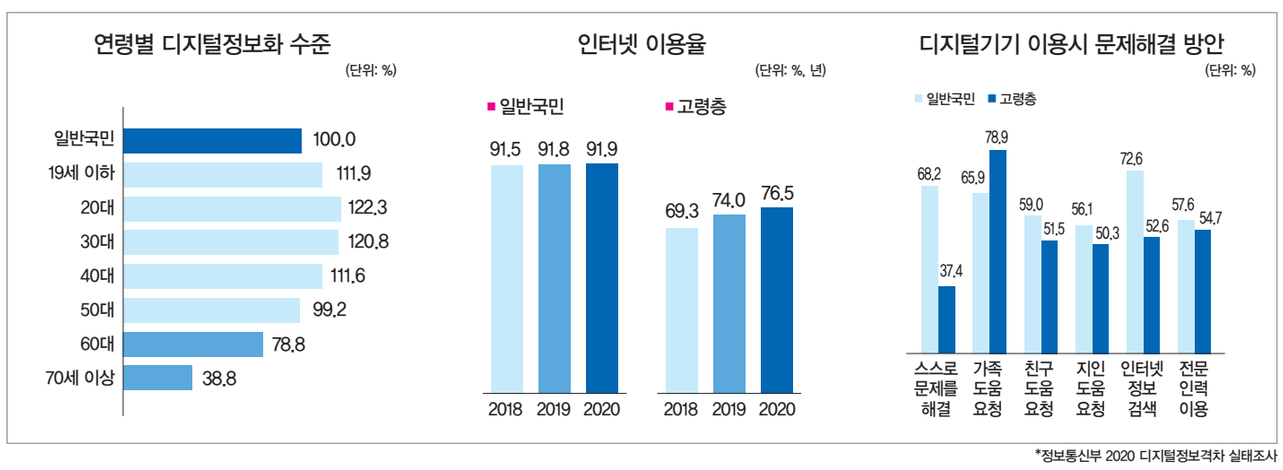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기부 방식 선호도 '랜선'이 1위
60대 이상선 선호 27.8% 불과
낮은 디지털 접근성 원인 지목
랜선 기부 확산은 시대의 흐름
불교 디지털 법회와 교육 필요



종로노인복지관이 지난해 진행한 어르신 디지털에이징 교육 모습. 자녀 등 가족에게 의존했던 것에서 점차 사찰 · 기관 등에서의 교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흐름인 랜선 기부에도 이같은 디지털에이징이 기반이 됨은 물론이다.



*정보통신부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핸드폰 쓸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줄 수 있나?" "스마트폰으로 기부? 그거 어려워서 못해"

사찰에서 만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신기남 할머니(73세)의 한숨어린 한마디다. 할머니는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폰은 단지 전화와 문자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이 할머니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랜선 기부가 기부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고령층인 불자들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방안' 인 '디지털에이징' 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랜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넘어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드는 변곡점에서 고령층 불자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에이징이 사찰과 불교계 안팎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2020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연령별 디지털 역량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에이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디지털 에이징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잘 쓰며 나이가 드는 것으로, 고연령층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사회참여와 활발한 여가생활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부 중 가장 선호 받는 방식 '랜선'

먼저 랜선 기부 방식은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가장 선호 받는 기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2018년 기빙인덱스 보고서에서 '기부요청을 받은 후 응답률' 사례에서 '거리모금이나 거리 회원 모집' 은 요청을 받고 기부하지 않은 비율이 32.2%, '기부단체의 직접요청' 은 기부하지 않는 비율이 26.5%, SNS기부 등 온라인 모금은 요청받은 후 기부하지 않은 비율이 14.4%로 나타났다. 온라인 모금이 자발적 동참에 근간하는 데서 실질적인 기부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선호하는 기부 방식 또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 27.1%, '모금함이나 저금통' 18.4%, '기부단체 직접요청' 17% 순으로 선호됐다.

다만 연령별 방식 차이에 대한 선호도에서 온라인 모금 캠페인 선호도는 19~29세에서 66.7%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27.8%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랜선 기부 선호 왜 떨어지나?

60세 이상에서 랜선 기부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디지털 접근성 부족이 지적된다.

정보통신부 2020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기준 삼았을 시 20대는 122%, 30대는 121%, 40대 111%, 50대 99%, 60대 78%, 70세 이상 39%로 60세 이상에서 디지털 역량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도 사무직 120%, 학생 115%, 서비스직 102%, 생산직 100%에서 가정주부 76%, 농어민 65% 등으로 드러났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 4대 계층으로 한정한 4대 계층 종합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60.3%로 이중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53.7%로 가장 낮았다. 2019년과 대비한 역량 수준 상승폭 또한 고령층이 2.1% 상승으로 장애인(6.4% 상승), 저소득층(6.0% 상승), 농어민(5.4% 상승)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라는 광의적인 개념 대신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률을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76.5%로 정보취약 4대 계층 인터넷 이용률 84.9%와 일반국민 이용률 91.9%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일반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인 93.1% 대비 크게 낮은 76.5%였으며, 고령층의 PC이용률은 일반국민 이용률 67.8% 대비 약 35%가 낮은 32.4% 수준이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누구나 익숙하지 못한 방법을 권유 받았을 때는 주저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면방식의 기부에서 최근 비대면방식의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지만, 고연령층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각광받는 스마트폰 서비스, 카카오톡, 유튜브 등 SNS 분야를 보면 고령층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

1043명의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 · 2020 서울시 복지관 평생교육 참여자 디지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9%인 518명이 전화 및 문자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는 22.4%인 204명, 유튜브 시청은 189명인 20.7%로 나타냈다. 약 50%가 스마트폰을 쓰되 전화와 문자 등 간단한 기능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 문자만…어르신 랜선기부 먼 길

실제 현장에서는 랜선 기부 활성화의 어려움이 느껴진다. 사찰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모연 캠페인 행복바라미 관계자는 "카드식 기부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디지털 결제 등을 활용한 기부 또한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기부가 모금함의 현금 기부"라고 전했다.

랜선 기부의 방안으로 제시된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등 또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아예 플랫폼에서도 저연령층이 주된 대상이라고 밝힌 상태다. 해피빈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10대와 20대가 기부 참여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기부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있기에 대부분이 50대 이하 계층에서 참여가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랜선 기부 경우 기부영수증 발급, 미디어를 활용한 기부체감 증대, 참여의 용이성 등 장점에 힘입어 점점 참여폭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가듯 전 연령대에서 균형 잡힌 기부방식이 자리 잡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불교 디지털에이징은 필수

이처럼 기부문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랜선 기부가 불교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불자들의 디지털에이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의 고연령층 대상 '디지털기기 이용시 문제해결 방법' 을 보아도 대부분이 가족 도움 요청(78.9%)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사찰에서 종무원들이 신도들의 요청으로 가족처럼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전반적인 디지털 에이징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랜선 기부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랜선 기부 뿐만 아니라 최근 사찰에서 진행 중인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SNS를 활용한 포교전법 분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찰 대소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에는 최근 이와 관련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조계사 측은 "최근 무인안내기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화를 진행 중에 있어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디지털 기기나 활용법, SNS 동참 등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인터넷 복지서비스를 진행하여도 정작 40% 어르신들만 접속이 가능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복지인권에도 연결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과 그에 수반되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은 불교계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4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4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법 제정, 2021년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심의와
지난해 시행한 설문지 분석결과 및 사업실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회칙 제4장 21조 ③항을 적용하고 회의는 대면, 비대면 동시 진행합니다.

- **일 시** : 불기2565(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유튜브 전국비구니회 채널
- **안 건** : 1. 회칙제·개정의 건
  2. 선거법 제정의 건
  3.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건
  4. 2021년 예산 및 사업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불기2565(2021)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